

# 조사

유동석

부산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교착어로서 국어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인 조사와 어미가 풍부하게 발달한 언어이다. 조사와 어미의 기능과 용법을 규명하는 일은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해명하는 일로서 국어문법 기술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 글은 조사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조사의 문법적 성격, 조사들의 기능과 의미를 다룬다.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글이기 때문에 용어 및 조사의 목록은 가능한 한 학교문법과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편)을 따른다.

## 1. 조사의 문법적 성격

### 1.1. 어휘적 요소와 문법적 요소

말은 생각을 나타내며 생각은 세계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말은 곧 세계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세계를 나타내는 말의 단위들로는 단어와 문장이 있다. 보통의 단어는 세계를 나누어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소, 감자, 떡(-다),...’ 따위가 세계를 나누어 그 각각에 이름을 붙인

단어들인데 특히 세계를 나타내는 이러한 것들을 어휘적 요소라고 부르며 어휘적 요소들을 문법적 성질에 따라 나눈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따위를 어휘 범주라고 한다.

문장은 세계의 일을 하나의 온전한 생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단어들 이 모여서 문장을 이룬다.

### (1) 소가 감자를 먹었다

위의 (1)이 단어들 이 모여서 이루어진 문장의 예이다. 그런데 위의 문장을 잘 관찰해 보면, 문장 속의 단어에는 세계를 나타내는 어휘적인 것에 언어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 덧붙여 있음을 볼 수 있다. (1)의 문장에서 밑줄 그은 ‘가, 를, -었다’ 따위의 것들이 언어의 형식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1)의 문장에서 ‘가’는 ‘소’가 주어라는 언어 형식으로 참여했음을 나타내는 표지이고 ‘를’은 ‘감자’가 목적어라는 언어 형식으로 참여했음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었다’에는 언어의 형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었-’과 ‘-다’ 둘이 포함되어 있는데, ‘-었-’은 (1)의 문장이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언어 형식임을 표시하는 것이고, ‘-다’는 (1)의 문장이 세계의 일에 대해 평범하게 알려주는 언어 형식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1)의 ‘가, 를, -었-, -다’처럼 언어의 형식을 표시하는 것들을 문법적 요소라고 부른다. 문법적 요소들에 표시되는 언어 형식을 문법범주라고 한다. 격, 시제, 높임법, 종결법, 접속법 따위로 불리는 것들이 문법 범주이다.

## 1.2. 조사와 어미

앞의 (1)의 문장에 나타나는 문법적 요소들 가운데 ‘가, 를’과 ‘-었-, -다’는 그것들이 실현되는 위치와 하는 일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나타나는 위치를 보면 ‘가, 를’은 체언 뒤에 붙어 실현되며 ‘-었-, -다’는 용언에 붙어 실현된다. 또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가, 를’은 문장을 짜는 한 성분이 문장

속에서 어떠한 구실을 하는가를 표시하며 ‘-았-, -다’는 문장 그 자체가 어떠한 형식의 문장인가를 표시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가, 를’과 ‘-았-, -다’는 그 실현 위치 및 기능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앞것을 조사, 뒤것을 어미라고 부른다. (1)의 것들만을 토대로 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서 그것들이 문장에서 하는 구실을 표시하는 문법적 요소이고 어미는 용언에 붙어서 문장 그 자체의 형식을 표시하는 문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앞의 (1)의 문장만을 관찰하여 조사는 체언에 붙어 실현되는 문법적 요소이고 어미는 용언에 붙어 실현되는 문법적 요소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국어의 조사가 반드시 체언에만 붙어서 쓰이는 것은 아니다.

- (2) 가.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간 않는군요.  
 나. 우선 먹어를 보아라.  
 다.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를 못 있습니다.

위의 (2가, 나)는 조사 ‘가, 를’이 체언이 아닌 용언의 활용형 뒤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고 (2다)는 조사 ‘를’이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조사를 체언 뒤에 붙는 문법적 요소로 잠정 결론지은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1)에서 조사가 붙은 ‘소, 감자’ 따위의 체언들과 (2)에서 조사가 붙은 용언의 활용형 ‘내키지, 먹어’ 및 부사 ‘가만히’의 공통된 속성은 더 이상의 문법적 요소가 붙지 않고도 단독으로 문장 속의 어떤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말들이라는 것이다. (2)의 ‘내키지, 먹어, 가만히’ 따위는 문장 속에 쓰일 때 조사 없이 그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1)의 ‘소, 감자’도 ‘소, 감자 먹어요’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없이 단독으로 문장 속에 쓰일 수 있는 것들이다. 이처럼 더 이상의 문법적 요소가 없이도 문장의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말들을 자립 형식이라고 하는데 조사는 자립 형식 뒤에 붙는 문법적 요소인 것이다.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말들의 자립성은 어미가 붙는 말들과 견주어 보면 뚜

럿해진다. (1)에서 ‘-었-’이 붙은 ‘먹-’이나 ‘-다’가 붙은 ‘먹었-’은 그것들만으로 문장 속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국어 문법에서 ‘가, 를’ 따위에 대해서는 단어 자격을 주어 조사라고 부르고, ‘-었-, -다’ 따위에 대해서는 어미라 하여 단어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이 붙을 수 있는 말들의 자립성 유무를 고려한 것이다.

### 1.3. 조사와 접사

앞에서 조사와 어미를 설명할 때 무엇에 붙어 쓰인다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조사나 어미처럼 다른 말에 붙어 쓰이는 말들을 접사라고 한다. 접사 가운데는 조사나 어미가 아닌 것도 있다.

(3) 가. 소가 먹이를 먹는다.

나.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위 (3가)의 ‘-이’와 (3나)의 ‘-들’이 그것인데 이들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생접사라고 하며, 흔히 좁은 의미로 접사라고 할 때는 이러한 파생접사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런데 (3나)의 ‘-들’은 자립형식인 체언에 붙는 것이어서 조사와 혼동하기가 쉽다. 복수 체언을 만드는 ‘-들’을 조사가 아닌 파생접사라고 하는 까닭은 조사는 그것들이 붙을 수 있는 어휘 범주가 주어지면 그 범주에 속하는 모든 단어들에 다 붙을 수 있지만 ‘-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령 조사 ‘가’는 체언에 속하는 단어들에게는 두루 붙을 수 있지만, ‘-들’은 일부 셀 수 있는 체언에만 붙는다. 주어진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에 두루 붙을 수 있는 것을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조사는 보편성이 있지만 ‘-들’과 같은 파생접사는 보편성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 1.4. 조사와 형태 교체

조사와 같은 접사적 성격의 요소들이 앞 말에 붙을 때 형태를 달리하는 일이 있다.

##### (4) 말의 풀을 먹었다.

위 (4)의 예에서 밑줄 그은 조사를 (1)의 것과 비교를 해보면 (1)에서는 주어 자리의 조사가 ‘가’이던 것이 (4)에서 ‘이’로 실현되어 있고 목적어 자리에서는 ‘를’이던 것이 ‘을’로 실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조사의 형태 바뀜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느냐 자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곧 (1)의 ‘소’와 ‘감자’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인데 이들 뒤에서는 ‘가’와 ‘를’이 실현되었고 (4)의 ‘말’과 ‘풀’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들인데 이들 뒤에서는 ‘이’와 ‘을’이 실현된 것이다. 이처럼 뜻은 같으면서 다른 말에 영향을 받아 형태를 바꾸는 것을 교체라고 하고 교체의 쌍을 이형태 관계에 있다고 하며 때로는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를 기준이 되는 것의 이형태라고 한다. 곧 ‘가’와 ‘이’는 이형태 관계에 있으며, ‘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면 ‘이’는 ‘가’의 이형태가 되는 것이다. 조사들 가운데는 앞말에 영향을 받아 형태 교체를 보이는 것들이 여럿 있다.

일부 조사들은 앞말의 형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옛말에서는 조사에 의해 형태 교체가 일어나는 체언이 여럿 있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몇몇 대명사만 조사와 결합될 때 형태 교체가 일어난다.

- (5) 가. 나+가 →내가  
       나. 너+가 →네가  
       다. 저+가 →제가

위의 (5)는 대명사 ‘나, 너, 저’가 조사 ‘가’와 결합될 때 각각 ‘내, 네, 제’로 바뀜을 보인 것이다.

### 1.5. 조사의 갈래

앞의 (1)의 예문에서 조사 ‘가’와 ‘를’은 체언에 붙어 체언들이 문장 속에서 하는 구실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들과처럼 체언 및 체언 상당 어구(곧 명사절 따위)가 문장 속에서 하는 문법적 구실을 표시하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부른다.

체언 뒤에 붙어 있지만 문장 속에서의 체언의 구실을 표시하지는 않으며 단어와 단어를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도 있다. 아래 (6)의 ‘와’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6) 영수가 삼국지와 와 홍길동전을 읽었다.

위의 (6)에서 ‘와’는 ‘삼국지’와 ‘홍길동전’이라는 두 개의 체언을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6)의 ‘와’처럼 체언과 체언을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를 접속조사라고 한다.

앞의 (2)의 예문에서처럼 체언이 아닌 말에 조사가 붙어 있을 때는 그것들이 비록 격조사라고 하더라도 문장 속에서 하는 구실을 표시하는 기능 없이 어떤 의미를 덧붙이는 일을 한다. 조사들 가운데는 체언이 문장 속에서 하는 구실을 표시하거나 단어와 단어를 이어 주는 기능 없이 의미만 덧붙이는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조사를 보조조사라고 부르며 학자에 따라서는 특수조사라 하기도 한다. 보조사들은 그것들이 비록 체언 뒤에 나타나더라도 뜻만 더할 뿐 격조사나 접속조사와 같은 그런 기능은 없다.

- (7) 가. 영수는 삼국지를 읽었다.
- 나. 영수가 삼국지는 읽었다.
- 다. 영수가 삼국지를 읽어는 보았다.
- 라. 어제는 영수가 삼국지를 읽었다.

위 (7)의 ‘는’은 ‘대조’의 보조사로 일컬어지는 것이다. (7가)는 주어 뒤에 나타나는 예이고 (7나)는 목적어 뒤에 나타나는 예인데 이처럼 ‘는’은 문장 속에서 체언이 하는 구실인 주어나 목적어 따위를 구별함이 없이 두로 쓰여서 ‘대조’라는 뜻만 덧붙인다. (7다, 라)는 보조사 ‘는’이 용언의 활용형 ‘읽어’와 부사 ‘어제’ 뒤에 나타나는 예를 보인 것이다.

## 2. 격조사

### 2.1. 격조사의 종류

격조사는 체언 또는 체언 상당 어구(명사절 따위)가 문장 속에서 하는 구실을 표시하는 조사이다. 단어들이 문장 속에서 하는 구실을 문장의 성분이라고 하는데 국어의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등 일곱 가지가 있고 체언은 이 일곱 가지 문장 성분으로 다 쓰일 수가 있다. 따라서 격조사도 모두 일곱 가지를 설정한다. 곧 주격조사, 서술격조사, 목적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호격조사가 그것이다. 이들 격조사의 명칭은 호격 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분 이름을 딴 것이다. 다만 독립어를 표시하는 조사를 호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독립어 가운데 부름말에만 이 조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 2.2. 주격조사

주격조사는 주어를 표시하는 조사이다.

- (8) 가. 소나무가 잘 자란다.  
 나. 배꽃이 눈처럼 희다.  
 다. 할아버지께서 오셨다.

위 (8)의 밑줄 그은 ‘가(/이)’는 주어를 표시하는 주격조사이다. (8가)의 ‘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 아래 쓰이는 것이고 (8나)의 ‘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쓰이는 것이다. (8다)의 ‘께서’는 높임의 뜻이 있는 주격조사이다.

주격조사가 반드시 문장의 주어만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주격조사는 주어표시 기능 외에도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내용과 관련하여 강조라는 심리적인 태도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앞의 (2가)에서와 같이 주어가 아닌 것에 붙은 주격조사는 강조의 의미만을 가진다.

### 2.3. 서술격조사

서술격조사는 체언에 붙어 체언을 서술어가 되게 하는 조사이다.

(9) 가. 영수는 학생이다.

나. 그는 부자(이)다.

위 (9)의 밑줄 그은 ‘이다’가 서술격조사이다. 주로 입말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말 다음의 서술격조사는 (9나)에서처럼 ‘이’가 탈락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용언이 서술어가 되는 것이지만 체언은 이처럼 서술격 조사가 붙어서 서술어가 된다. 그런데 서술격조사는 조사 가운데 용언처럼 활용하는 유일한 것이다. 곧 서술격조사는 문장 속에서 ‘이-다, 이-었다, ...’처럼 반드시 어미와 함께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이다’를 지정사라 하여 용언의 하나로 처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다’는 그것 단독으로 세계를 가리키는 일이 없으며 또한 접사로서 반드시 자립형식 뒤에 실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사의 일반적인 문법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 2.4. 목적격조사

목적격조사는 목적어를 표시해 주는 조사이다.

- (10) 가. 영수가 삼국지를 읽는다.  
 나. 철수는 홍길동전을 읽었다.  
 다. 나는 널(←너+를) 좋아해.

위 (10)에서 밑줄 그은 ‘를’과 ‘을’이 목적격조사이다. ‘를’은 ‘삼국지’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쓰이는 것이고 ‘을’은 ‘홍길동전’처럼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쓰이는 것이다. 주로 입말에서 ‘를’은 (10다)의 예처럼 ‘ㄹ’로 줄기도 한다.

목적격조사도 목적어 표시 기능 외에 주격조사처럼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 앞의 (2나, 다)에서와 같이 목적어가 아닌 것에 붙은 목적격조사는 강조의 의미만으로 쓰인 것이다.

## 2.5. 보격조사

보격조사는 보어를 표시해 주는 조사이다.

- (11) 가. 그는 부자가 되었다.  
 나. 그는 대학생이 아니다.

학교문법에서 용언들 가운데 ‘되다’와 ‘아니다’만 보어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1)에서 ‘부자가’와 ‘대학생이’가 학교문법에서 말하는 보어인데 이들에 붙어있는 조사 ‘가’와 ‘이’가 곧 보격조사이다. 보격조사 ‘가’와 ‘이’는 주격조사와 그 형태가 똑 같다. 학자에 따라서는 보격조사를 따로 세우지 않고 이들도 주격조사로 부르기도 한다. 보격조사 ‘가, 이’는

주격조사와 그 형태가 같지만 보어 뒤에서 ‘께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12) 가. 그분께서 선생님이 되셨다.

나. \*그분이 선생님께서 되셨다.

위의 (12)에서 볼 수 있듯이 ‘께서’는 (12가)처럼 주어 자리에는 실현될 수 있으나 (12나)처럼 보어 자리에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12나)의 별표(\*)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 2.6. 관형격조사

관형격조사는 체언 관형어 뒤에 실현되는 조사이다.

(13) 가. 이 옷은 새의 깃털처럼 가볍다.

나. 고슴도치도 제(←저+의) 세끼는 흠뻑하다 한다.

위 (13)의 밑줄 그은 ‘의’가 관형격 조사이다. 관형격 조사 ‘의’는 몇몇 대명사와 결합할 때 (13나)의 ‘제’처럼 화합(amalgam)되기도 한다. (13)의 ‘제’는 재귀대명사 ‘저’와 관형격조사 ‘의’가 화합된 것인데 화합된 형태 대신 ‘저의’가 쓰일 수도 있다. 관형격조사와 화합되는 대명사에는 재귀대명사 ‘저’ 외에도 ‘나, 너, 저(낮춤의 일인칭 대명사)’ 따위가 더 있다.

## 2.7.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는 체언을 부사어가 되게 하는 조사이다.

(14) 가. ① 오늘 나는 꽃밭에 물을 주었다.

② 기차는 1시에 출발한다.

- ③ 이번 비에 피해가 컸다.  
 나. 그 처녀는 나그네에게 물을 주었다.  
 다. ①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었다.  
     ② 콩으로 메주를 쑨다.  
     ③ 그는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을 위인이다.  
     ④ 그 두 사람은 친구로 지낸다.  
     ⑤ 그는 바다로 떠났다.  
     ⑥ 그는 감기로 결석하였다.  
 라. ① 모처럼 아내와 나들이를 했다.  
     ② 그녀는 사슴과 닮았다.

위 (14)의 밑줄 그은 ‘에, 에게, 로(/으로), 와(/과)’ 등이 대표적인 부사격조사들이다. 이들은 문장 속에서 체언을 부사어로 만들어 주는 공통된 기능 외에도 각각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 부사격 조사는 그 고유한 의미에 따라 명칭을 세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14가)의 ‘에’는 처소의 부사격조사라고 하는 것인데, 흔히 처소격조사 또는 처격조사라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부사격조사가 그러하듯이 ‘에’ 또한 다의적이다. (14가①)은 장소를, (14가②)는 시간을, (14가③)은 원인을 나타낸다. ‘에’는 보조사의 하나인 ‘서’와 함께 ‘에서’의 형태로 쓰이기도 한다.

(14) 가. ④ 오늘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하였다.

위 (14가④)의 ‘에서’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처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14나)의 ‘에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흔히 여격조사라 하기도 한다. 처소의 ‘에’가 주로 무정체언에 붙는 것임에 비해 ‘에게’는 유정체언(사람을 포함한 동물을 가리키는 체언)에만 붙을 수 있어, 그 실현 위치가 ‘에’와는 상보적이다. (14가①)과 (14나)를 비교해 보면 실현

위치의 상보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에게’를 ‘에’의 이형태로 취급하는 학자도 있다.

‘에게’가 ‘나, 너, 저’ 따위의 대명사와 결합할 때는 앞에서 본 관형격조사 ‘의’의 경우처럼 대명사‘와 ’에게‘의 ’에‘가 화합되기도 한다.

(15) 이것을 너에게/네게 주마.

(15)는 이인칭 대명사 ‘너’에 ‘에게’가 결합될 때 ‘너에게’와 같은 형태가 실현될 수도 있고, 화합된 형태인 ‘네게’로 실현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에게’가 대명사와 결합할 때 형태론적으로 관형격조사 ‘의’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에게’의 ‘에’가 기원적으로 관형격조사 ‘의’와 같은 형태이었기 때문이다.

입말에서는 ‘에게’ 대신 ‘한테, 더러, 보고’ 등을 쓰기도 하며 높임의 뜻이 있는 명사 뒤에서는 ‘께’를 쓴다.

(16) 가. 이것을 너에게/한테/\*더러/\*보고 주마.

나. 누가 너에게/한테/더러/보고 오라고 했니?

(17) 이것을 할머니께 갖다 드려라.

위 (16)은 ‘에게’ 자리에 ‘한테’나 ‘더러, 보고’가 쓰일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 들은 주로 구어체에 나타나는 여격조사들인데 쓰임의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테’는 ‘에게’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자리에 다 나타날 수 있지만 ‘더러, 보고’는 (16나)처럼 인용절 따위의 절을 가지고 있는 문장에만 나타난다. (17)은 높임말 다음에서는 ‘에게’ 대신 ‘께’가 쓰임을 보인 것이다.

(14다)의 ‘로(/으로)’는 변성의 부사격조사라고 하는 것인데 흔히 조격조사로 부르기도 한다. ‘ㄹ’ 및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로’가 쓰이고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으로’로 실현된다. ‘로’의 의미

또한 매우 다의적이다. (14다①)은 변성의 의미를 띤다. (14다①)에서 변성의 의미는 서술어인 ‘바뀌다’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로’가 가지는 변성의 의미는 ‘바뀌다, 되다, 만들다, 삼다’ 등 용언 자체가 변성의 의미를 가지는 구문에서 두렵이 읽을 수 있는 의미이다. 이러한 용언이 서술어인 구문에서 변성의 의미를 띠는 ‘로’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필수성분인데 ‘로’를 조격조사로 부르는 것은 이들 구문에서의 ‘로’의 용법을 기본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4다②)의 ‘로’는 재료의 의미를, (14다③)의 ‘로’는 도구의 의미를, (14다④)의 ‘로’는 자격, 신분의 의미를, (14다⑤)의 ‘로’는 방향의 의미를, (14다⑥)의 ‘로’는 원인의 의미를 가진다. 이들 가운데 재료, 도구의 ‘로’는 ‘로써’ 형태로, 신분, 자격의 ‘로’는 ‘로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방향의 ‘로’와 원인의 ‘로’ 뒤에는 각각 ‘향하여’와 ‘인하여’가 뒤 따를 수 있다.

(14) 다. ②' 콩으로써 메주를 쏜다.

③' 그는 소 잡는 칼로써 닭을 잡을 위인이다.

④' 그 두 사람은 친구로서 지낸다.

⑤' 그는 바다로 향하여 떠났다.

⑥' 그는 감기로 인하여 결석하였다.

‘로’에 뒤 따르는 ‘써, 서, 향하여, 인하여’ 등은 용언에서 유래한 것이거나 아직도 용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서 각 예문의 ‘로’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겉으로 보아 ‘로’ 부사어가 목적어를 가지는 듯한 예도 있다.

(18) 가. 시청을 중심으로 10km 이내가 도심이다.

나. 그는 떡밥을 미끼로 잉어를 낚았다.

위 (18)의 밑줄 그은 부분에 나타는 목적어 ‘시청을’과 ‘떡밥을’은 표면적으

로 드러나 있는 서술어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18가)의 서술어 ‘도심이다’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것이며 (18나)의 ‘냤았다’의 목적어는 ‘잉어를’이다. 그런데 (18)의 ‘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 따위가 나타날 수 있다.

(18)가. 시청을 중심으로 하여 10km 이내가 도심이다.

나. 그는 떡밥을 미끼로 하여 잉어를 냤았다.

‘하여’가 실현된 (18)를 고려하면 (18)에서 밑줄 그은 부분에 나타나는 목적어는 바로 이 ‘하여’의 목적어이었던 것이 ‘하여’가 탈락함으로써 마치 ‘로’ 부사어의 목적어처럼 보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4라)의 ‘와(/과)’는 흔히 동반의 부사격조사라고 하는 것인데 공동격조사로 부르기도 한다. ‘와’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실현되며, ‘과’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실현되는 ‘와’의 이형태이다. (14라①)의 ‘와’는 ‘동반’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14라②)의 ‘와’는 비유의 기준이나 대상을 표시하는 것이다. ‘와(/과)’ 자리에 ‘랑(/이랑), 하고’ 따위가 나타나는 일도 있다.

(19)가. 모처럼 아내와/랑/하고 나들이를 했다.

나. 그녀는 사슴과/이랑/하고 닮았다.

위 (19)는 입말에서는 ‘와(/과)’ 대신 ‘랑(/이랑), 하고’ 따위가 쓰일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19)의 ‘랑(/이랑), 하고’ 따위는 주로 입말에 쓰이는 동반의 부사격조사들이다.

앞에서 본 것들 외에도 부사격조사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있다. 그러나 그 목록이 대단히 복잡하며 또한 어떤 것들은 보조사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학자에 따라 부사격조사의 체계를 달리 설정하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인용의 부사격조사의 경우만 더 보기로 한다.

(20) 가. 그는 나에게 “자네도 같이 가세”라고 하더군.

나. 그는 나에게 나도 같이 가자고 하더군.

위 (20가)의 ‘라고’는 직접인용절 뒤에 붙는 것이고 (20나)의 ‘고’는 간접인용절 뒤에 붙는 것이다. 그런데 인용절은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는 자립 형식이므로 ‘라고’와 ‘고’는 조사의 범주에 들어온다. 또한 문장성분으로서 인용절은 현대국어에서 부사어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라고’와 ‘고’도 부사격조사에 드는 것이다.

## 2.9. 호격조사

호격조사는 독립어 가운데 체언으로 된 부름말 뒤에 쓰이는 조사이다.

(21) 가. 영수야, 이리 와.

나. 바람아, 불어라.

위 (21)의 ‘야/(아)’가 호격조사이다. ‘야’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실현되고, ‘아’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실현된다. ‘야/(아)’는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호격조사이다, 정중하게 부를 때는 ‘여(/이여)’나 ‘시여(/이시여)’를 쓴다.

(22) 가. 그대여, 떠나지 마오.

나. 사랑하는 사람이여, 보고 싶구나

(23) 가. 열사시여, 고이 잠드소서.

나. 임이시여, 벌써 나를 잊으셨습니까?

위 (22)의 ‘여(/이여)’는 정중하게 부르는 호격조사이고 ‘시여(/이시여)’는 ‘여’보다 높임의 뜻이 있는 호격조사이다. 이들은 직접 대면하여 부를 때는

쓰지 않으며 주로 시나 추모 글 따위에서 볼 수 있다. ‘여’와 ‘시여’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그리고 ‘이여’와 ‘이시여’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쓰인다.

## 2.10. 격조사의 생략

문장 속에서 체언들은 격조사 없이도 문장의 성분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

(24) 가. 비(가) 온다.

나. 홍길동전(을) 읽어 보았나?

다. 철수는 영수(의) 동생이야.

(24)의 밑줄 그은 ‘비, 홍길동전, 영수’는 조사 없이 체언만으로 각각의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앞에서 격조사는 체언이 문장에서 하는 구실을 표시해 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4가)에서는 ‘비’가 주어임을 표시해 주는 주격조사가 생략된 것이고, (24나)에서는 목적격조사가, 그리고 (24다)에서는 관형격조사 생략된 것이다. (24)의 각 문장에서 조사를 괄호로 예운 것은 그것이 생략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격조사의 생략은 주로 주격조사(및 보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가 쓰일 자리에서 잘 일어나고 부사격조사는 잘 생략되지 않는다.

(25) 가. \*물을 꽃밭(에) 주었다.

나.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었다.

다. \*나는 영수(와) 갔다.

위 (25)의 예들은 부사격조사 ‘에, 로, 와’ 따위가 생략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됨을 보여준다.



- (26) 가. 영수가 학교(에/를) 갔다.  
 나. 꽃분이를 머느리(로/를) 삼았다.  
 다. 그 아이는 제 아버지(와/를) 닮았다.

위 (26)의 예들에서는 마치 부사격조사들도 생략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 예를 잘 관찰해 보면 밑줄 그은 체언들 뒤에는 목적격조사도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4) 및 (25)의 예와 함께 생각해 보면 (26)의 예들에서도 부사격조사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목적격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둘 이상의 체언을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이다.

- (27) 가. 배와 감과 사과를 샀다.  
 나. 배랑 감이랑 사과랑 샀다.  
 다. 배하고 감하고 사과하고 샀다.  
 라. 술에 밥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  
 마. 이번 태풍에 배고 감이고 다 떨어졌다.  
 바. 저는 배나 감이나 다 좋아합니다.  
 사. 명에며 지위며 돈이며 하는 것들은 죄다 부질없는 것이다.

위 (27)의 밑줄 그은 ‘와(/과), 랑(/이랑), 에, 하고, 고(/이고), 나(/이나), 며(/이며)’ 따위가 접속조사이다. 이들은 모두 앞에서 본 몇몇 격조사와 형태가 같다. 가운데 ‘와, 랑(/이랑), 하고’는 앞에서 본 동반의 부사격조사와 그 형태가 같으며 ‘에’는 처소의 부사격조사와 동일한 형태이고 ‘고(/이고), 나(/이나), 며(/이며)’는 서술격조사에 연결어미 ‘-고, -나, -며’ 따위가 붙은 것과 형태가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을 격조사가 아닌 접속조사로 따로 세우

는 것은 그 기능에서 격조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격조사가 붙은 체언은 문장의 한 성분이 되지만 접속조사가 붙은 체언은 그것만으로는 문장의 성분이 되지 않고 접속조사에 의해 이어진 모든 체언이 한 덩어리로 문장성분이 되는 것이다. 가령 (27가)에서 접속조사가 붙은 '배와'와 '감과'가 따로따로 문장 성분이 되지를 못하고 '배와 감과 사과를'이 한 덩어리로 '샀다'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다.

앞의 (27)의 것들 외에 '에다가/에다' 형태도 접속조사로 사용된다.

(28) 가. 술에다가 밥에다가 떡에다가 많이도 먹었다.

나. 술에다 밥에다 떡에다 많이도 먹었다.

(28가)의 '에다가'는 접속조사 '에'에 보조사 '다가'가 붙어서 형성된 접속조사이다. (28나)의 '에다'는 '에다가'의 준말이다.

#### 4. 보조사

보조사는 비록 체언에 붙어 있더라도 그 체언이 문장 속에서 하는 특정한 구실을 표시하는 기능 없이 어떤 의미만을 덧붙이는 일을 하는 조사이다. 격조사나 접속조사가 언어 형식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것에 비하여 보조사는 의미를 덧붙인다는 점에서 어휘적 요소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국어의 보조사 가운데는 다른 언어에서 어휘 자격을 가지는 것에 대응하는 것도 있다. 뒤에서 보게 될 보조사 '만'의 경우, 영어의 어휘적 단어인 'only'에 대응하며 보조사 '도'의 경우도 영어의 'also'에 대응한다. 그러함에도 '만, 도' 따위를 어휘가 아닌 문법적 요소인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격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립형태 뒤에 붙는 보편성을 가진 접사라는 점 때문이다.

보조사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는(은)'이다. '는(은)'은 대조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9) 가. 영수가 삼국지는 읽었지만 홍길동전은 읽지 않았다.  
나. 영수가 삼국지는 읽었다.

보조사 ‘는(/은)’은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는’이 쓰이고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은’이 쓰인다. ‘는(/은)’이 대조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29가)가 잘 보여준다. (29가)에서 ‘는(/은)’이 붙은 말은 ‘삼국지’와 ‘홍길동전’인데 하나는 읽었고, 다른 하나는 읽지 않았다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으로 비교되어 있다. (29가)의 ‘삼국지’와 ‘홍길동전’처럼 서로 비교되는 쌍을 자매항이라고 하는데, (29나)처럼 자매항 가운데 하나가 문면에 드러나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때도 (29나)에서는 대조의 의미를 읽을 수가 있다. 곧 (29나)는 ‘삼국지’가 아닌 다른 어떤 책은 읽지 않았다는 함축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29나)의 ‘는’ 자리에 목적격 조사 ‘을’을 써서 ‘영수가 삼국지를 읽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서는 (29나)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함축적 의미를 읽을 수가 없다.

‘는(/은)’이 대조의 의미를 가질 때는 문면에 드러나든 아니면 함축 속에 있든 반드시 대조되는 쌍, 곧 자매항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는(/은)’의 용법 가운데는 자매항이 상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29) 다. “옛날 옛적에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라. “누가 홍길동전을 지었는지 아니?” “응,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었어.”

(29다, 라)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는(/은)’은 특정한 자매항이 상정되지 않는다. 특정한 자매항이 상정되지 않는 이러한 ‘는(/은)’은 대조의 의미보다는 문장의 정보 전달과 관련된 어떤 기능을 한다. (29다, 라)의 ‘는(/은)’이 붙은 말을 잘 살펴보면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29다)의 ‘그 나무꾼은’은 앞 문장에서 ‘한 나무꾼이’로, 그리고 (29라)의 ‘홍

길동전은'은 앞의 물음에서 '홍길동전을'로 이미 언급된 것들인 것이다. 이처럼 '는(/은)'은 이미 언급되었거나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어서 정보의 전달가치가 낮은 말 뒤에 붙는다. 정보전달과 관련해서 '는(/은)'과 대척적인 위치에 있는 조사는 '가(/이)'와 목적격의 '를(/을)'이다.(29다, 라)에서 '나무꾼'과 '홍길동전'이 이야기 속에 처음 도입될 때는 각각 주격의 '가(/이)'와 목적격의 '를(/을)'이 실현됨을 볼 수 있는데 '가(/이)'나 '를(/을)'은 격 표시 기능 외에도 이처럼 이야기 속에 처음 도입되어 정보전달 가치가 높거나 화자가 특별히 강조할 목적으로 정보전달 가치를 높게 잡은 말 뒤에 실현되는 것이다. 저 앞의 예문 (2)에서 주격조사 '가(/이)'와 목적격조사 '를(/을)'이 체언이 아닌 용언의 활용형이나 부사 뒤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았는데 이러한 '가(/이)'나 '를(/을)'은 격 표시 기능이 아닌 정보전달 가치와 관련된 기능으로 쓰인 것들이다.

앞에서 '는(/은)'이 대조의 의미를 가질 때 자매항이 상정됨을 보았는데, 자매항이 상정될 수 있는 보조사는 상당히 많이 있다. 먼저 단독의 의미를 가지는 '만'과 역시의 의미를 가지는 '도'부터 보기로 한다.

- (30) 가. 그 총각, 마음씨만 좋다.
- 나. 그 총각, 마음씨도 좋다.

위 (30)의 두 예문은 '그 총각이 마음씨가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는 똑 같다. 그러나 '그 총각'에 대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속뜻은 전혀 다르다. '단독'의 '만'이 쓰인 (30가)는 '마음씨는 좋지만 다른 것은 모두 안 좋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으며 '역시'의 '도'가 쓰인 (30나)는 '마음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좋다'는 것을 함축한다. 겉으로는 동일한 일을 말하면서 이처럼 다른 속뜻을 가지는 것은 (30)의 밑줄 그은 보조사 '만, 도' 때문이다. 곧 보조사 '만, 도'에 의해 자매항이 상정됨으로써 이러한 함축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만'과 '도'의 경우도 자매항이 상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31) 가. 잘만 한다.  
 나. 잘도 한다.

(31)의 ‘만’이나 ‘도’에서는 특정한 자매항이 상정되지 않는데, 이 경우 ‘만’은 강조의 의미를, ‘도’는 놀라움이나 감탄의 의미를 가진다.

앞에서 ‘만’은 표현된 것과 함축된 것의 내용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도’는 표현된 것과 함축된 것의 내용이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을 보았는데, 자매항을 상정시키는 보조사들은 함축의 내용에 따라 ‘만’ 유형의 것과 ‘도’ 유형의 것으로 갈라 볼 수 있다.

- (32) 가. (다른 것은 하지 말고) 긋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나. (좋은 음식은 못 먹지만) 죽이나만 먹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나.  
 다. (다른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 줄 수 없겠니?  
 라. (삼국지는 안 읽었어도) 홍길동전이야 읽었겠지.

위 (32)은 ‘만’ 유형의 함축을 가지는 보조사들의 용례들이다. (32가)의 선택의 보조사 ‘나(/이나)’, (32나)의 불만의 보조사 ‘나마(/이나마)’, (32다)의 양보의 보조사 ‘라도(/이라도)’, (32라)의 특수성의 보조사 ‘야(/이야)’ 따위도 괄호 속의 것과 같은 것을 동반하거나 함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시피 괄호 속의 것들은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만’의 함축과 유형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32가, 나, 다)의 ‘나(/이나)’, ‘나마(/이나마)’, ‘라도(/이라도)’는 서술격조사의 활용형에서 보조사로 전용된 것들인데 형태교체 방식이 서술격조사와 유사하다. 다만 모음으로 끝나는 말 아래에서 서술격조사는 ‘이’가 수의적으로 주는 데 비해서 보조사로 쓰일 때는 ‘이’가 필수적으로 준다는 차이가 있다.

- (33)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고) 너까지/마저/조차 그런 말을 하느냐?

위 (33)은 ‘도’ 유형의 함축을 가지는 보조사들의 용례를 보인 것이다. 미침(到及)의 보조사 ‘까지’, 더함(添加)의 보조사 ‘조차’, 끝남(종결)의 보조사 ‘마져’ 따위는 괄호 속에 보인 것과 같은 함축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들 보조사가 쓰인 자리에 ‘도’가 나타나더라도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함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보조사들 가운데는 그 기능이 특수한 것들도 있다.

(34) 가. 거리마다 인파가 넘쳐났다.

- 나. ① 애들아, 물들 마셔라.
- ② 고 녀석들 참 많이들 컸구나.
- ③ 너희들 참 오래간만이구나들.

(34)의 밑줄 그은 ‘마다’와 ‘들’은 복수의 의미를 띠는 보조사들이다. ‘날날이 모두’라는 의미를 가지는 (34가)의 ‘마다’는 그것이 붙은 말에 복수의 의미를 더한다. (34나)의 밑줄 그은 ‘들’도 복수의 의미를 띠는 것이지만 ‘마다’와는 달리 그것이 붙은 말에 복수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 복수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이점에서 보조사 ‘들’은 앞에서 본 파생접사 ‘-들’과 기능상의 차이를 보인다. (34나)에서 ‘애들, 녀석들, 너희들’에 나타나는 ‘-들’은 파생접사로 쓰인 것들인데 이들 파생접사는 그것이 붙은 말이 복수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분포에서도 보조사 ‘들’과 파생접사 ‘-들’은 차이가 있다. 파생접사 ‘-들’은 셀 수 있는 명사에만 붙을 수 있는 것이지만 보조사 ‘들’은 (34가①)에서 볼 수 있듯이 ‘물’과 같이 셀 수 없는 말에도 붙을 수 있고 (34가②)에서처럼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으며 때로는 (34가③)에서처럼 문장의 종결어미 뒤에도 붙을 수 있는 것이다.

보조사 ‘서’도 문장의 주어와 관련된 특수한 기능을 하는 일이 있다.

(35) 가. ① 산에서 내려왔다.

- ② 이 모임의 회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나. ① 자기가 해 놓고선 남의 탓을 댄다.  
 ② 너무 기빠서 어쩔 줄을 모른다.  
 다. 학생이 둘이선 다정하게 걸어간다.

보조사 ‘서’는 주로 (35가)의 용례처럼 부사격조사에 붙어 나타나거나 (35나)의 용례처럼 용언의 활용어미 뒤에 나타나며 체언에 직접 붙는 일은 드물다. 그런데 (35다)에서처럼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인수(人數) 뒤에 붙는 일도 있는데 보조사 ‘서’가 붙은 인수는 항상 주어의 수를 나타낸다. 이런 까닭으로 (35다)의 인수 뒤에 붙은 ‘서’를 주격조사의 하나로 간주하는 학자도 있다.

청자 높임의 뜻을 더하는 보조사도 있다.

(36) 나는요 어제 집에 있었어요.

위 (36)의 밑줄 그은 ‘요’는 청자 높임의 뜻을 더하는 보조사이다. 격조사 가운데도 ‘께서, 께’ 따위의 높임 형태가 있음을 보았는데 주격의 ‘께서’는 주어 자리에 쓰여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에 대해 높임을 표시하고 부사격의 ‘께’는 부사어의 자리에 쓰여 그것이 붙은 말이 가리키는 인물에 대해 높임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보조사 ‘요’는 독립어나 관형어를 제외한 모든 문장 성분 뒤에 두루 쓰이며 그 기능도 ‘요’가 붙은 말에 대해 높임의 뜻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에 대한 높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국어에서 청자에 대한 높임은 보통 종결어미에 표시되는데 보조사 ‘요’가 해체(반말) 종결어미 ‘-어’에 붙어 해요체의 ‘-어요’를 형성하기도 한다.

보조사들 가운데는 그 실현 위치가 특이한 것들도 있다.

(37) 가. 자네도 왔네그려.

- 나. ① 비가 옵니다만는 농사는 이미 틀렸습니다.  
 ② 내가 그곳에 갔더니만는 아무도 없더라.

앞에서 보조사 ‘들’과 ‘요’가 종결어미로 끝나는 말 뒤에도 나타날 수 있을  
을 보았는데 (37)의 밑줄 그은 ‘그려’와 ‘마는’은 주로 종결어미로 끝나는  
말 뒤에 나타나는 보조사들이다. (37가)의 ‘그려’는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는  
보조사로서 하계체, 하오체, 합쇼체의 일부 종결어미 뒤에만 나타난다. (37  
나)의 ‘마는’은 앞말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의문이나 어긋나는 상황을  
나타내는 보조사인데 주로 ‘-다, -자, -냐’ 따위의 문장종결어미 뒤에 붙으며  
종결어미가 아닌 것으로는 (37나②)에서 보인 것처럼 ‘-더-’를 앞세운 연결  
어미 ‘-니’ 뒤에 나타날 뿐이다. ‘마는’은 ‘만’으로 줄기도 한다. 이들 보조사  
‘마는’과 ‘그려’는 체언에 붙는 일 없이 주로 종결어미와 함께 쓰이는 것이  
어서 용언의 활용어미로 생각하기 쉽다. 특히 ‘마는’의 경우는 단순히 뜻만  
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이어 주는 기능도 한다는 점  
에서 연결어미와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활용어미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립성이 없는 의존 형태 뒤에 붙는 것임에 비해 ‘마는’과 ‘그려’는 다른 조  
사들이 그러하듯이 자립성을 가진 형태 뒤에 붙는다는 점에서 조사의 범주  
에 들어온다.

보조사 가운데는 활용어미와 형태를 같이하는 것도 있다. 앞에서 본 서  
술격 조사의 활용형이 보조사로 전성된 것들 가운데 ‘이’가 줄어든 ‘나, 나  
마, 라도’ 따위 외에도 ‘다가’를 추가할 수 있다.

- (38) 가. 벽에다가 낙서를 했다.
- 나. 붓으로다가 글씨를 썼다.
- 다. 책상을 어디(에)다가 둘까요?

- (39) 가. 책을 읽다가 잠시 졸았다.
- 나. 빛을 얻어다가 사업을 시작했다.

위 (38)의 밑줄 그은 ‘다가’가 보조사이다. 선행어의 의미를 뚜렷이 해 주는  
기능을 하는 보조사 ‘다가’는 (38가,나)에서처럼 주로 부사격조사를 앞세워  
실현된다. (38다)처럼 부사격조사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는 ‘어



디, 거기'처럼 장소 부사어 뒤로 한정된다. (39)의 밑줄 그은 것에 나타나는 '-다가'는 어미이거나 어미의 일부분이다. (39가)의 '-다가'는 중단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미이다. 연결어미 '-다가'는 '읽-'처럼 자립성이 없는 말 뒤에 붙는 것이라는 점에서 (38)의 자립성 있는 말 뒤에 붙는 보조사 '다가'와는 분포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39나)의 '다가'는 연결어미 '-어다가'의 한 부분이다. 사전들에서는 '-어다가'를 한 덩어리로 다루고 있으나 학자에 따라서는 '-어'와 '다가'를 분석하여 이곳의 '다가'도 보조사에 포함시키는 일이 있다.

아래 (37)의 밑줄 그은 것들은 체언과 형태를 같이 하는 보조사들이다.

(40) 가.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나. 믿을 것은 실력뿐이다.

다. 모든 일이 항상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41) 가. 밖에 누구 있느냐?

나. 그는 말만 그럴 뿐이고 행동은 그렇지 않다.

다. 하루 종일 발길 닿는 대로 하염없이 걸었다.

(40)의 밑줄 그은 '밖에, 뿐, 대로'는 보조사이고 (41)의 밑줄 그은 것들은 체언이거나 체언에 조사가 붙은 것이다. '밖에'가 체언적인 용법으로 쓰일 때는 본래의 뜻대로 '바깥에'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보조사로 사용될 때는 본래의 의미에서 떨어져 '더 없음'의 뜻으로 사용된다. 단독의 의미를 갖는 '뿐'과 같음의 의미를 갖는 '대로'는 보조사로 쓰일 때나 체언(의존명사)으로 쓰일 때나 의미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분포에서 차이를 보인다. 곧 (40나, 다)에서처럼 보조사로 쓰일 때는 체언 뒤에 위치하며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41나, 다)에서처럼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난다.